

## 여름철 재해 대비 문화·체육·관광 현장 안전 점검 강화

- 유인촌 장관, 호우피해 예상되는 현장 찾아가 안전 살피고 현장 목소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7월 17일(수), 각 소속기관(38곳)과 공공기관(31곳)에 대해 호우피해 상황과 안전 점검 사항을 보고 받고 집중호우 및 여름철을 대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문체부는 지난 6월부터 여름철 집중호우 등을 대비하기 위해 소관 시설 171개소에 대해 배수로와 침수 장비(펌프 등) 등을 집중 점검했다. 8월까지의 하계휴가를 대비해 물놀이형 유원시설 256개소와 수영장 1,550개소 등 1,806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안전 점검을 더욱 강화한다.

유인촌 장관도 호우피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문화·체육·관광 시설 등의 안전을 살펴볼 예정이며, 향후 여름철 재해 대비 점검을 위한 현장 행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담당 부서	비상안전기획관	책임자	기획관	우승용 (044-203-2280)
		담당자	사무관	강경철 (044-203-2291)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